

**조국의 자주와 통일이
이천만 여성의 기쁜 삶이 있습니다**

-자주와 통일을 연원하는 여학우등께 드립니다-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해 49년 8월
제 7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961-0667)

자료집을 내면서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여학우들의 의지가 그 어느 해보다도 끈질기게 올 상반기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범민족대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 더 많은 학우들이 “분단과 통일, 나의 삶과 통일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상반기에 했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함께 읽고 느끼고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이

순서

갈바진 조국, 우리들의 삶-----	2
우리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주한미군범죄-----	10
하나되어야 할 우리 누이들, 이북여성-----	19
통일되면 우리는-----	28
범민족대회에서 만나요!-----	32

갈라진 조국, 우리들의 삶

민족이 뿔뿔히 갈라진 것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던 한 가정의 족지에 뿔뿔히 갈라진 것과 같습니다. 갈라진 자체가 가족 등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듯이, 민족 분단 역시 민족 전체에 대해 크던 작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분단은 여성, 특히 여대생인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미국으로부터 강요된 분단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명경

일본 제국주의 패망을 앞두고, 연합국들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은 독립을 유지할 힘이 없으므로 2,30년의 신탁통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다 전쟁 막바지에 한반도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1945년 8월 10일과 11일 사이 미국은 국무성, 육군성, 해군성 합동위원회 철야회의에서 육군성의 두 대령에게 한반도 분할선을 확정해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대령의 30분 동안의 논의에 따라서 38선이 한반도 지도 위에 그려졌고, 이 선은 그 후 반세기에 걸쳐서 민족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에게는 소련에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 전진기지가 필요하고, 기지는 한반도여야 하며, 소련이 이미 한반도에 진주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지배 아래 두지 못한다면 민족을 둘로 가르고서라도 남한만이라도 미국의 지배 아래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깃발린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의 여명

미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를 분할하는 과정은 우리 민중들과 외세, 민족 내부의 반통일세력 사이의 참극이었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친일파를 제외한 온 민족은 이념의 좌우를 떠나 새조국을 건설하고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농민들은 토지개혁을,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경제수립과 노동자로서의 사람다운 삶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들 역시 1920년대 일본인 조합주의 부당한 수탈에 맞서 결사적으로 싸웠던 제주도 해녀투쟁, 30년대 최대의 노동자 연대투쟁이었던 평양 고무공장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만주와 한반도 산악지역 일대의 유격투쟁('태백산맥'이나 '녹슬은 해방구'에 나오는 유격대 여성들을 기억해보시면 되겠지요)에서 이미 옛 조선시대의 '자결로 대항하는' 소극적인 투쟁방식을 벗어 던지고 각종 시위와 무장투쟁으로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고 부녀회를 만들어 왔던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여성들은 45년 8월 17일에 건준 부녀부를 만들고 각 지역 건준에 부녀부를 세웠으며 뒤이어 조선부녀총동맹을 결성하고 각 지역 여맹을 건설하면서 생존권 보장, 단정 수립 반대, 공창제 폐지, 남녀 평등권 보장 등 봉건적인 잔재를 없앨 것과 평등한 삶,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미군정 당국과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총칼로 모든 사회적 운동을 억압하였습니다. 도민의 1/3을 학살한 4.3 제주민중항쟁, 한 막사에서만 1700여명을 학살한 거제도 포로수용소 학살사건에서 나타난 참혹성이 어디서나 드러났습니다.

미군정의 쌀 공출과 생활고에 항의하여 여성들이 벌인 쌀투쟁이 폭력적으로 저지된 것처럼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생존권보장을 바라는 여성들의 요구도 흔적없이 짓밟혀야 했습니다.

해방 전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해 노력해 온 여성인사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이북으로 피신해야했고('아리랑고개의 여인'에 나오

는 것처럼), 오직 보호받은 것은 친일파, 친미파뿐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정신대로 여학생들을 내몰았던 고향경(전 서울여대 학장), 임영신(중앙대 설립자), UN한국 조사단단장 매난을 미인계로 끌어들이 UN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한 모운속 등 미국과 이승만을 위해 돌아치는 여성들만이 여성운동가라고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분단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세력과, 미국과 함께 여성들을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내세웠던 반민족세력사이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서라도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여 동북아를 자신의 손에 쥐려는 미국의 의도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1,000여개의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북을 선제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인 미국군대를 한반도 전역 120개 기지에 주둔시키고 대규모 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계속하고 있으며, '분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독재정권을 반세기가 되도록 만들어오고 지원해온 것입니다.

2. 우리 삶에 그어진 38선

여러분은 '분단의 고통'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이산가족, 국가보안법, 장기수, 또...

민족의 통일발전을 바라던 우리 민중의 의사를 짓누르고 외세와 반민족세력이 민족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단은 우리 민족의 삶 곳곳에 험한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에나 그어져 있는 38선. 이 분단의 선은 과연 여성들, 특히 여대생인 우리들의 삶 또 어디에 그어져 있을까요?

분단은 한 핏줄을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이번의 대립을 민족 내부에 심오한 담벽으로 세워놓았습니다.

600만이 죽고 다치고, 천만가족이 헤어지게 된 분단과 전쟁. 수많은 여성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여 군인에게 강간당하고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을 안고서도, 가로막힌 휴전선 때문에 전쟁 때문에 남편과 가족을 잃고서도 죽지 않기 위해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고 팔다리 잘린 가족들을 부양해야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성들은 이산과 부상의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매춘의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군을 따라 평양까지 진격(!)하기도 한 기지촌 여성들이 바로 이 분단과 전쟁으로부터 생겨났지요.

또한 사상적 대립의 와중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거나 불온한 가족으로 낙인찍혀서 숨어살 수 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민주화운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사상적 고아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단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차라리 분단현실을 외면하고 그로부터 도피하려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단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단은 독재를 유지시키고 사회 민주 발전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보안법 같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제도가 생겨나고, 권인숙씨 성고문사건처럼 민주화운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성고문이 저질러졌습니다. 또 자그마한 민주적인 요구도 좌경시되고 억눌려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차별해결요구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방 이후 여성들의 활발했던 운동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이어져내려올 수 있었다면...지금 우리들이 부딪쳐야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의 모습, 침묵해야하는 여성들의 삶은 꽤나 달라져있지 않을까요?

둘째로, 분단은 미군이 한국군 작전지휘, 통제권을 다 가지고 이 땅 전역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었고, 우리 민족이 주한미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갖가지 피해를 당연히 감수해야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미군으로부터 강간당하고 살해당했던 수많은 윤금이 누이가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들 옆에 있고, 미군이 퍼뜨려놓은 향락문화가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민족,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는 정부정책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지역개발을 저해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절도, 폭행 등 미군범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윤금이 누이처럼 미군과 매매춘관계를 맺는 기지촌여성들입니다.

일제시대에 20여만명 조선처녀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가 하루에 100명까지도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굶주림과 성병으로, 끝내는 몰살되어 죽어야했듯이, 민족이 외세에 침탈을 당하면 이 땅의 여성들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은 다시 우리 민족 여성들의 성을 침탈했습니다. 120개 기지, 4만 5천명의 미군, 그 주변에는 역시 4-5만에 이르는 기지촌여성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 동안 미군 훈련장소를 쫓아 포주에게 끌려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하루에 10여명씩이나 되는 미군들을 상대해야하는 ‘이 시대의 정신대’입니다.

미군들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거의 강간에 가까운 성관계,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며, 여성들은 미군의 변태적 욕구를 만족시켜야한다는 포주의 요구 아래 클럽이나 여관가에서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테크닉 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미군들은 화대를 때어먹거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지만, 여성들은 생계 위협 때문에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만 빚만 깊어지게 되어, 남는 것은 빚과 병박에 없게 됩니다. 미군과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빚을 갚아주고 결혼하는 미군은 여성을 샀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한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 가운데 90%이상이 가난 때문에 매춘을 직업으로 택한다고 합니다. 한 해에 17억 달러(2조억원)의 미군주둔비용을 물고 있는 남한 정권이, 그 돈을 빈부격차 해소와 실업문제해결(특히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쓴다면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85년 전두환정권이 동두천 지역에 부여한 50억원의 대부분이 동두천 기지촌 주변의 퇴폐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이 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우리가 치투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얼마나 크며 이 고통이 자주적이지 못한 정부 때문에 얼마나 부채질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내 민족 내 거래를 적으로 삼고 안보를 외국군에 구걸하다보니 어느덧 일본 자위대가 새로운 해외파병주둔지역으로 한국을 손가락에 꼽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대’가 아니라 ‘진짜 정신대’가 다시 생겨날 지도 모르는 것이 분단이 우리 여성들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셋째로, 분단은 미, 일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냈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여성들이 당해야만 하는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인 저임금, 여대생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여대생취업차별 등이 다 이런 원인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를 이루던 남북이 갈라지게 되자, 남북 모두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나갔나 봅시다.

'적산불하' '원조' '차관' 이것이 5-60년대 우리나라 자본공급원이었습니다. 일본이 나가자 우리 자체기술로는 알코올 한 방울 만들 수 없던 상황에서, 모든 기술은 아무리 하찮더라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비싼 로얄티가 붙은 채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보리고개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상황에서 국내수요는 적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상품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 덤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주들은 자체기술발전 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땅투기를 일삼고, 정권은 기업주로부터 정치 자금을 챙기는 상황에서, 형편없는 임금을 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땀위에서 값싼 수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GNP가 5천불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요즈음도 자본, 기술, 시장 모든 면에서 예측적이고 내실없는 경제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노동자의 30%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심합니다. 여성노동자의 50%이상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시장개방압력은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대량 감원, 해고를 불러오고, 이것은 또 저임금을 끌고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서열 제 1위는 여성노동자들이지요. 앞서 말한 매매춘여성들도 '힘겨운 노동에서 건디지 못한 여성들'이고, 대졸여성들 역시 그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해마다 취업의 문은 좁아지는데 대졸여성들에게는 바늘구멍만하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내제로, 분단은 퇴폐향락문화가 마구 들어오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은 퇴폐향락문화라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지요?

분단 이후 '미국은 좋은 나라'라는 의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면서, 미국의 퇴폐향락문화도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AFKN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우리 나라에 직접 미

국문화를 전파하는 기지역할을 한 것입니다.

퇴폐향락문화가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에는 매매춘과 성폭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성욕대로 여성의 성을 살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계 3위의 성폭력 왕국, 그 증가율은 거의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대생의 90%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학교 안에서도 강간이 자주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120만에 이르는 매매춘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예측적 정치, 경제구조, 문화실태가 만들어낸 피해자들입니다. 가난해서, 강간당해서, 인신매당해서. 이것이 매매춘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매매춘을 하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준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기지촌여성이 생겨나는 세상도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여대생, 이 세상이 만들어낸 여성들의 삶에 비하면 어쩌면 참 운 좋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분당과 나,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내 삶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38선이 가시 철조망 그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철조망의 아픔을 아픈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파 아픔을 없애는 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주한미군범죄

지난 5월, 윤금이 누이 살해사건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뻘 되는 김국혜씨가 스무살 미군에게 실신할 정도로 폭행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한국여성에 대한 강간, 폭행 사건들은 우리를 하여금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왜 이렇게 여성들이 계속 당해야 할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두 가지 의문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주한미군범죄, 왜 계속되는가

미군범죄가 왜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민족사에서 미군이 해왔던 역할과 범죄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위협해온 주한미군범죄

45년 9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3년동안 군정을 실시한 미군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대로 한민족의 허리를 동강내더니, 아 땅에 발을 딛는 첫날부터 우리 민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친미, 숭미사대정권인 이승만정권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군이 4.3 제주민중항쟁을 직접 진압하여 8만명을 학살해버린 것이 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은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더 이상 주둔명분이 없게 되자 49년 6월에 병력을 철수시킨 이후에도 군사 고문단 500명을 남겨 한국군 교육훈련권,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38선에서 크고 작은 교전을 수시로 지휘했습니다. (당시 고문단장의 발언: “38선 이북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사람은 오직 미 군사고문단 뿐”) 사실상으로 미군은 철수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 병력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에서입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 속에서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 때문에 일어났고 한국군과 미군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해야 했으며, 유엔 전체의 협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지금의 휴전선까지를 수복한 결과를 낳은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미군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철수했다가 한국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들어온 것일까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벌써 미국은 유엔에서 채택할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유엔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루 전에는 한국 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알고 있었고 미군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엔은 동맹군을 조직했지만, 유엔군 공군의 98% 이상, 지상군의 88%가 미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유엔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또 한국민중들로부터 미군주둔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과연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수행한 임무가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을까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방침은 한국인이면 무조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40만인 평양시에 떨어진 폭탄만 40만톤, 30만발의 폭탄이 열흘 사이에 떨어져 산이 깎여나갔다는 백마고지, 휴전협정발효 10분전까지도 원산에 가해진 폭격.

미군의 전쟁전술은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어형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파괴하고 보는 것, 이것이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실연한 공격적 전술이었습니다. 우리 민중의 생명과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닥치는 대로 죽여라. 설사 그대들 앞에서 있는 것이 어린이나 노인이자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어서는 안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이며 또 유엔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평화의 수호자, 자유의 전사라 자칭하는 미 8군 사령부가 유엔군 병사들에게 내린 전투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윤금이 누이 살해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미군들은 중인 남편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뚫었다. 그들은 방에 있던 노동 표창장을 그의 이마에 못으로 박고 그가 죽을때까지 고문했다. 우말재의 며느리는 미군장병들이 그 시아버지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 하였다. 미군장병들은 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서 나무에 비껴어맨 다음 젖을 베고 국부에다 막대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은 다음 산 채로 불을 질렀다.”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 법률가 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한국 전쟁기간에 전국에 걸쳐 골고루 미군사령부의 계획적인 학살만행이 저질러졌으며(황해도 신천군에서는 주민의 1/4 이 학살되고 한 마을에서는 87%가, 한 마을에서는 남자는 모두 학살됨) 이북에서만 노인, 어린이, 부녀자등 100만명의 민간인이 1951년 여름까지 살해되었습니다. 또, 세균전, 거제도 포로수용소 학살사건 등 미군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비인도적 전쟁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범죄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역사를 묻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민중을 무수히 죽였던 학살의 경험은 주한 미군전체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5,60년대에 참혹한 미군범죄사태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전쟁의 경험때문이었습니다.

동두천 여인 식발사건, 포천 페인트칠 사건, 부평 소년 헬리콥터 궤착사건, 왜관 린치 사건, 군산 소녀 총격사건 등 갖가지 잔혹한 미군범죄가 일어났는데, 62년 1월 6일에 일어난 파주 나뭇꾼 총격사건을 자세히 봅시다.

“상해당한 황광길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땔나무를 구하러 마을 뒷산으로 갔다. 나무를 해가지고는 산을 내려올 무렵 갑자기 나뭇꾼들은 미군에게 포위당했다. 황씨와 유기용씨가 미군병사 3명에게 사격을 당해 숨졌다. 미군당국은 비무장지대에 들어온 나뭇꾼이 정지명령을 어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공무집행권에 의해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를 했다. 같이 나무하러 갔던 사망한 유기용씨의 동생 유기홍씨는 당시 상황은 위협사격을 가한 정도가 아니었고 수십명이 포위해 사격한 것이 마치 오리사냥과 같았다고 증언한다.”

미국의 원조 위에 세워진 이승만, 박정희 정권조차도 미군범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측에 보내고 한미행정협정 제정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만행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8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은 다시 한번 우리 민중에게 대대적인 학살극을 자행합니다.

“5월 22일 백악관은 광주사태를 토의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미국방성은 그날로 한미연합사에 직속되어 있는 한국군 2개 사단의 결정에 따라 미국방성은 그날로 한미연합사에 직속되어 있는 한국군 2개사단의 지휘권을 한국군부에 넘겨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AP 통신 80.5.22)

학살의 기억을 되살리고 미군병사들에게 ‘한국민족은 죽어도 권좌는 존제’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주범은 매년 더 공격적으로 되풀이되는 팀 스피리트 훈련 등 군사훈련입니다.

76년부터 시작된 팀 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80년 이후 적용된 '공지전독트린'-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선제공격하며, 전선과 동시에 적 후방 중심지역을 공격한다-에 따라 1,000여개의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여 한민족을 몰살로 몰아넣기 위한 핵전쟁연습입니다. 이북이 쳐들어오면 남한을 지켜주는 방어연습이 아니라 '강한 미국'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를 무대로 벌이는 전쟁일 뿐인 것입니다.

미국법치의 잔혹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미국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잔혹한 원인을 일차적으로는 주한미군들 대부분이 사회하층이고 저질문화에 빠져있다는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민족과 주한미군과의 관계를 되짚어보면, 미국병사의 범죄는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배층들은 군사경제 활성화, 대외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공산주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그 전쟁에 내세웁니다. 실제로 제일 전방인 동두천, 파주, 의정부에 주둔하고 전쟁시 가장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매년 전쟁연습에 동원되며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이라는 부대 표어를 갖고 있는 미 2사단의 병사들은 이북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북에 가겠다'는 말을 뇌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렇게 교육된 병사들을 동원하여 한국전쟁에서처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전술로 엄청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미국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것을 실전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을 우리 민족에게 사용할 것이 조장되는 현실이니, 미군범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군법치층 막연시킨 분단과 전쟁

이처럼 주한미군범죄가 성행하게 된 가장 큰 역사적인 원인은 바로 분단과 전쟁입니다.

분단이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는데도, 이북을 적으로 돌리는 분단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합리화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끊임없는 전쟁연습자체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사들에게 무자비한 살상을 교육하는 미군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윤금이씨 사건처럼 미군병사 개인의 범죄처리에 있어서도 항상 굴욕적인 자세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는데 범죄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분단은 주한미군범죄가 생겨나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여성들은 주한미군법치의 가장 큰 피해자

여성들은 미군이 저지르는 강간, 폭행, 살인, 퇴폐향락문화 유포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주한미군법치의 제 1차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

한국남성을 상대로 한 매매춘 관계에서도 매춘여성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되는데, 한국정부도 급신거리는 미군을 상대로 한 매매춘관계에서 기지촌여성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군들은 더군다나 이민족의 여성들을 더 마음대로 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여성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것입니다. 하루밤의 화대도 지불하

기 싫어서 도망가버리는 놈, 자신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클럽을 출입하는 여성을 빗을 갠주고 국제결혼하겠다고 감언이설로 피어 몇달 생활하다 싫증이 나면 본국으로 도망가는 놈, 욕하면 시비걸어서 얼굴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놈, 윤금이 누이처럼 기지촌여성들을 강간하고 살해해버리는 놈-주한미군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저지르는 범죄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지촌여성들은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강간, 폭행, 살인의 제 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마약과 AIDS, 음란포르노 유통 등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1차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을 맞고 포르노 비디오를 봐야 하는 것이 이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도 주한미군범죄의 대상

기지촌 여성 아닌 평범한 여성들, 바로 우리들도 주한미군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86년 TS 훈련기간중 충북 제천군 봉양면에서 이 마을 국민학교에 근무하던 이모 교사는 수업후 귀가하던 중에 미 25 사단 포병대대 소속 5-6 명에게 납치되어 야산으로 끌려가 무참히 집단윤간, 농락을 당하였습니다. 이교사는 임신 6개월이었으며 그후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미대사관은 사실무근임을 애써 강조했으나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이 교회기관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평화신문 88.7.24)

김국혜씨 사건도 미군범죄가 기지촌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폭행, 살인, 강간범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범죄'의 주범입니다.

지난 89년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울 용산미군기지 맞은 편 '성조기'(미8군신문) 보급창에서 7년동안 수억원 어치의 음란기구, 음화, 포르노비디오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인 창고 관리자만 구속되고 말았는데, 한국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군기지에서 그 정도의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미군자체에서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지금도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서적, 포르노비디오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현행 법으로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에 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8군의 팝송이 다음 날이면 강남 유흥가로 흘러나오고, AFKN의 퇴폐적인 프로그램이 얼마후면 우리나라 TV방송국에서 방영됩니다.

향락문화는 앞의 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 여대생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성폭력의 위협, 누구나 당해 본 추행 등 이런 모든 일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향락문화의 영향인 것입니다.

나라가 자주권을 빼앗기면 여성들이 몸으로 때울 일이 많아진다는데 -이 땅의 현실, 우리 여성들의 현실이 이 말과 왜 그리도 비슷한지요.

3. 미군범죄를 변호하는 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범죄가 하루 5건이나 될 정도로 만연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범죄는 계속해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조항을 윤금이 누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개 봅시다.

#본문 22조 5항 '범죄 혐의자 수사 및 구속'

피의자가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고, 한국에서 구금 중이더라도 미군이 요청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

:수사도 없이 마클이 미군에게 넘어가서 진상규명도 어려웠다. 또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클은 불구속 상태에서 아직도 미군 측에 있는 것입니다.

#합의 의사록 22조 9항 '피의자 인권보장'

한국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기준을 충족해야 함.

:냉장고, 양변기 있는 감방이 없다는 것이 마클을 구속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본문 22조 7항 '징역형 복역 조항'

범인이 한국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에서 복역중일 때, 미국이 신병인도요청을 하면 한국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함.

:마클이 언제든지 미국에 송환,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재판권을 미국에 넘기게 하는 여러 조건을 두고 있는 것, 한국어와 영어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으면 영어본을 따르기로 한 것 등 한미행정협정에는 불평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4. 주한미군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되는 주한미군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범죄에 대하여 엄중처벌하여 비슷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자국의 이해에 의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있는 동안 그들의 범죄는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특히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논리를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복을 더 이상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한다면, 주한미군은 이 땅에 주둔할 근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고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주한미군범죄 위협으로부터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내되어야 할 우리 누이들, 이북여성

갈라진 지 반 세기이지만, 5천년을 함께 살아온 한민족이기에 아직 남과 북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것이 많습니다. 남과 북의 여성들 또한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글에서는 여성들의 천식과 남북 여성들의 의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북여성들과 우리의 같은 점을 먼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북 여성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민족이요 통일 의 한 주체이니까요.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1. 이북 여대생들은 취업지법은 받지 않나요?

최근 몇 년 동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90%이상이나 되는 여대생이 취업을 원하고 있고 평생직장을 가지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학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구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대생 취업이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모든 걸 미국과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다보니까 경제사정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당장 취업문이 좁아지고, 당연히 여대생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도 남성과 동일한 일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일을 해도 임금은 남성 사원들 70%수준 정도 될까요. 그나마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들의 5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나 쟁길 짬도 없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북 여성들은 어떨까요? 먼저 1962년 김일성 주석의 연설을 보면서 이북 여대생들의 사회진출 상황과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짐작해봅시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은 안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이 천 수백명이나 있습니다. 원래 대학을 졸업하면 5년 이상 직장에 복무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나 보고 밥이나 짓는 사람을 양성하자고 국가가 대학공부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 여성들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의 훌륭한 간부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시집하고 아이 낳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기 위하여 배우기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여성들의 그릇된 사상입니다.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도 공부를 계속하여 학사와 박사도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직장생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니 여대생이라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는 없을 듯 하지요?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보려니까 남한처럼 남성들하고는 다른 단순직종 등으로 취업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교사와 의사들 가운데 70% 이상이 여성이고 관리직등을 뽑을 때도 남녀성별보다는 '사상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니, 적어도 여성이라고 취업에서 차별을 겪는 일은 없어보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회진출에 대한 이북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남북의 여대생들이 공동적으로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가 직장에 나가게 되는 원인은 남편이 버는 돈이 적어서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자들 스스로가 자아를 실현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는 것만 갖고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서로 단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또 하나의 조국’ 가운데서)

취업차별철폐운동의 성과로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지키라고 기업에 업포를 놓고 있는 것, 이북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이것들이 모두 남북 여성들의 공통된 모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2. 이북에서는 여성들만 집안일을 안디는다-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가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가사일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비싼 가전제품을 종류대로 사야합니다. 파는 반찬들도 참 비싸지요.

이북 여성들을 그린 소설 등을 읽으면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왜 이북에서도 밥하는 일은 여자만 하는 거야”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만큼 우리 여학우들은 가사일이 여성부담으로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는 가사일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부부도 꽤 생기고 있고, 탁아소도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많이 생겨나고 정부에게도 탁아소 설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과중한 가사일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70년 11월 조선노동당 5차대회에서 3대혁명 중 기술혁명의 하나로 ‘여성들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북에서 우리 사회와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은 국가가 가사일을 많이 대신해주는 점입니다.

우선 탁아소가 잘 되어있어 육아의 부담이 없습니다. 일일 탁아소, 주간탁아소, 월간탁아소 등 부모의 처지에 따라서 탁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도 딱 맞춰 주고 너무 잘 해주기 때문에 아이가 탁아소 가기를 무척 좋아한다”고 이북 여성들은 말한다는군요...

또 국가가 가사일을 대신해주는 것은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는 물만 부으면 되는 마른국수가 개발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무공해로 만드는데, 남한의 기술수준으로 그걸 못 만들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남한에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봤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만들어지고 있겠지요. 남한에서는 약품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없을 것이구요. 이북에서는 대부분 돈이 별로 안 들면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조리식품 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가가 마을마다 밥공장, 김치공장 등을 만들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국도 가지고 다니면서 팔구요.

그래도 남는 가사일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가사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가 2명 이상 있는 기혼여성들은 하루 6시간 노동을 하고 8시간 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2시간 만큼 이 여성들은 가사일을 하니까 그 것을 노동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가사일은 남성과 함께 분담해서 해야 할텐데, 지금은 분담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이건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듯 합니다) 이북 남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사일을 분담하는가 ‘벗’(백남통 작)이라는 소설의 정진우 판사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이 판사는 ‘유치원과 학교를 거쳐 군대에 나간 아들의 성장기간에 안해 대신 어머니 구실을 한’ 사람인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그리고 가끔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적도 있었지만... 보람있는 생활이었소. 결혼시절의 리상이... 지향과 목표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는 것이 난 기쁘오. 연약한 당신이 그 참다운 연구생활에서... 지나간 탐구의 길에서 머리에 서리가 내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걸 보는 게 내게는 행복이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날에는 이런 진실하고 깨끗한 동지적 감정을 품지 못했더랬소. 젊었을 땐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뒷바라지를 했고 다음엔 그저 남편이니 안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더랬소. 그러다보니 남들의 아늑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부러워했고 목가적인 순수한 가정적 행복을

바란 적도 있었소.”

가사일을 나눔으로써 동지인 아내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돕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인데, 실제 얼마나 많은 이북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남편을 둔 여성이 부럽지 않으세요?

이북에서 여성들을 가사일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운동이 전사회적으로 벌어진 것은 결코 정부가 시혜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사일을 부담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에 참가하고 남성들과 동등하게 한 몫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고, 이 여성들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생활에서 유용한 대책들이 이북의 실정에 맞게 정부의 대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에서도 탁아문제의 경우 자모들이 직접 나서서 정부에게 탁아소 설립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가사일의 부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남이나 북이나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이북여성들은 다스곳이기를 요구받는 것 같은데, '여자가 어딜...'이라는 이야기 안 듣고 서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몫을 담당하려고 준비하는 여대생이 되고나서는 더 많이 들어야 했구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때로는 두터운 벽 뒤로 밀어내기도 하고, '여자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하는 오기를 일으켜내기도 합니다.

이북 여성들은 어떨까요? 이북에서도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북의 유명한 여성조각가 정운애씨(33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이북 여성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직장을 나가고 집을 비우시면 소녀 정운애는 남몰래 아버지의 칼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자 손을 비어 피흘

리기 일쑤다. 어른들은 꾸지람을 했다. "계집아이가 그런 것 해서는 못 쓰느니라"라고. 어린 마음에도 사나이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실기를 마치고 구두 시험을 치르는데 교수 "모두는 근심 어린 질문들을 했다. "여자가 꽤 하잖나?" ... "여자가 뭘? 걸핏하면 들어야 하는 주변 동료의 놀림. 운애 양은 그 놀림이 싫었다."

동병상련이긴 한데, 그래도 남과 북의 차이점은 있을 듯 하지요?

남에서는 워낙 출신지역, 계층, 학력 등 사람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만드는 일이 성행하다 보니까 '여자가 뭘=여자는 요만큼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맙니다. 한 선배는 남성과 똑같이 은행에 들어갔는데도 전문대 대우 밖에는 받지 못하고, 어느 항공회사에 들어간 선배는 들어갈 때 결혼하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써야했답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그런 차별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여성은 혁명과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생각 아래 여성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45년 전 이야기이지만, 48년 이북 첫 문화선전상으로 임명되었던 허정숙 여사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실은 김 주석이 문화선전상으로 여사를 지명했을 때 일부 일꾼들은 난색을 표시하였다. 어떻게 여성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직 우리보다 먼저 혁명을 한 형제나라에도 그런 전례가 없지 않은가 등의 반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었다. 하지만 김 주석은 이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힘, 이것입니다.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북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일 텐데, 그것 역시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힘의 정도에 비례하겠지요. 남북 여성들 모두가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나가야겠습니다.

통일되면 우리는

통일이면, 분단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분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통일은 참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통일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최대한 모으는 방식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연방제 방식이지요.

통일되면 한반도의 연방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성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외세로부터 자주

통일이 되면 우선 자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 민족 나름대로의 발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구요, 외세에 짓밟히는 여성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것이지요.

일본으로부터 자주권 획득

일본정부에 남북이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신대 문제 등 일본전쟁범죄의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61년에 한일 협정을 굴욕적으로 체결하였기에 정신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북한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민족의 한을 풀기위해 일본정부에 자주적인 입장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생관광도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주권 획득

분단이라는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군도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군범죄가 아예 발생할 수 없겠지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고 이전의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자주적 입장에 근거해서 맺어질 것입니다.

미군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해왔던 각종 범죄-전쟁범죄, 강간, 살인, 철도, 환경오염, 퇴폐문화확산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상받아야 하고, 혼혈아, 기지촌 여성 등 미군도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양육-복지비용을 대개 해야지요. 미군기지는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공간, 휴식공간, 공장부지로 쓰고요.

2.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전쟁위협 영구히 없애

앞의 '갈라진 조국..' 글에서 본 것과 같은 분단과 전쟁이 가져다준 여성들의 피해를 영구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도 통일군대가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방위비 삭감으로 여성복지 확대

통일 자체가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이기에 군비축소와 방위비(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0%)를 삭감하여 여성들을 위한 탁아소나 성폭력상담소, 별거중이거나 이혼여성을 위한 쉼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해 17억달러(2조억원)에 이르는 주한미군주둔비용분담액을 이용하면, 주한미군 범죄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위해 미군들에게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미군들과 매매춘을 해온 기지촌여성들의 복지문제 직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민족이 하나되는 민족대단결

남북여성의 활발한 교류와 친밀감 높이기

자연스럽게 각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북의 탁아소 설치 실태나 여성취업실태 등이 남한사람들에게 꽤나 “우리도 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하는 생각을 불러놓겠지요. 그러면 남한에서 여성들, 우리 여대생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전체를 위해서’ 직장생활과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이북 여성들을 만나보면, 우리들도 ‘여성도 사회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외세와 독재정권 아래 성차별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온 남한 여성들의 모습은 북한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자극을 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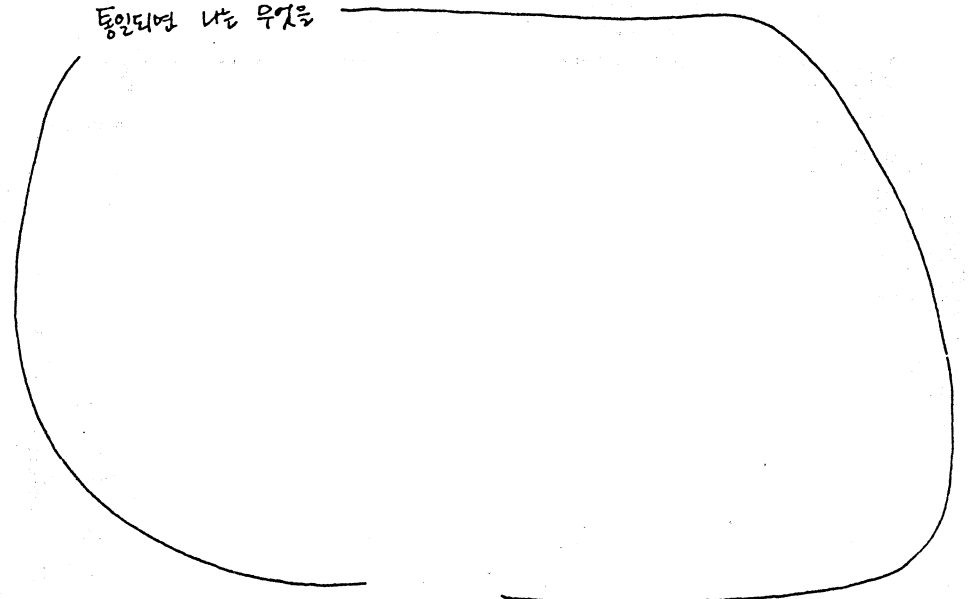
통일때를 이으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열싸안았던 남북 여성교류에서도 보이듯이, 여성들은 쉽게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부분을 찾아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서로 만나면서 ‘우린 하나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성들이 통일된 조국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조국에서는 제일 가치있는 일이 민족 사이의 불신과 분열의 벽을 깨는 일일테니까요.

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때문에 각계각층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요구마저 무시하는 분단상황이 사라지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민주주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차별해결의 실마리도 마련됩니다. 취업차별이니 뭐니도 사라지겠지요.

여성해방의 시원이 된 통일은 본딴으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북어 넣어 줍니다. 우리들의 기쁜 삶을 앞당겨 줄 통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자주통일운동에 힘있게 참가하자구요!

통일되면 나는 무엇을



★ 범민족대회에서 만나요! ★

범민족대회는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함께 벌이는 축제입니다. 범민족대회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의지가 모여지는데, 우리 여학우들도 범민족대회에서 우리가 윤금이 누이 살해미군처벌운동, 기지촌활동 등을 통해 올 상반기 느꼈던 자주와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함께 나누고 의지를 다집시다.

서여대협에서는 기지촌활동의 경험을 함께 하면서 분단과 미군주둔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여성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하고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요구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학우들과 함께 준비하고 참가하여 기활의 소중한 경험과 자주통일 의지를 함께 합시다.

기지촌활동 보고대회와

클린턴에게 미군범죄근절 요구 엽서보내기운동

연제: 범민족대회 기간중(아직 미정, 14일 또는 15일 낮시간)

장소: 연세대학교

1부 기지촌활동 보고대회

활동보고

기활 경험 연극

기활 일지 낭독

기지촌여성과의 연대, 주한미군 철수, 범죄근절 요구 결의

2부 클린턴에게 항의엽서 보내기 운동

신촌거리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받기

연세대에서 정리